

이제 만화에서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읽는다

만화비평서 및 만화에세이 새로운 출판장르로 자리잡아



최근 출간되는 책들 가운데 만화를 읽어주는 만화비평서, 만화에세이들이 유독 눈길을 끈다. 지난해부터 만화출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는 게 싫더니,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비평서 출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만화비평이 전문지에 발표되고 그 결과물이 비평서로 엮여 나오기 시작한 건 1990년대 들어서다. 그전까지만 해도 만화는 저급한 상업문화로 취급됐고 '만화방'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최근 만화비평서가 연이어 출간되고 있는 현상은 만화가 그동안의 홀대에서 벗어나 연구·비평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상비평에서 주제비평으로 발전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만화비평에서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비평서들이 화제작을 대상으로 한 인상비평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면, 최근 출간된 비평서들은 비평 대상을 만화사 전반으로 넓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선정우의 《슈퍼 로봇의 혼》, 황의웅의 《주먹대장은 살아있다》(이상 시공사) 등이 그 면면인데, 《슈퍼...》은 '슈퍼 로봇이란 과연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마징가Z—그레이트 마징가—그렌다이어'로 이어지는 <마징가> 시리즈의 계보를 살폈다. 《주먹대장은...》는 1970년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만화 《주먹대장》 19편의 에피소드를 모으고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했다. 또한 이 만화의 장르가 어린이를 위한 시대활극이라고 정의했다.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란 부제를 단 박인

하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살림)는 일본만화의 등장에 밀렸던 한국 순정만화의 복권을 시도한다. 지은이는 1950년대부터 동시대 작가까지 아우르면서 만화가들의 작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내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과 일본 순정만화의 영향력을 시대별로 분석한다. 한재규의 《한국만화 원형사》(이다미디어)는 한국만화의 기원, 암각화에서 민화로 이어지는 한국만화사의 흐름 등을 살폈다. 법학자 박홍규 교수의 《오노레 도미에》(소나무)는 풍자만화의 대가 도미에의 작품 속에 깃든 날카로운 현실비판과 인간애에 뿌리박은 진정한 풍자정신을 읽어낸다. 이 책들은 만화사 기술과 주제비평을 병행함으로써 만화 내의 장르적 분화와 변천을 설명명한다.

'예술로서의 만화보기', 곧 만화 미학을 탐구한 책들의 출간도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백준기 교수의 《만화 미학 탐문》(다섯수레), 성완경 교수의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생각의나무)는 만화가 문자와 이미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서사언어란 점에 주목해 문화적 기호로서 만화의 매력을 탐색한다.

만화웹진 통해 만화평론 빠르게 확산돼

위에서 소개한 책들이 특정 장르에 대한 깊이 있고 다각도의 분석이 돋보이는 책들이라면, 《만화당 인생》(함성호, 마음산책), 《박인하의 즐거운 만화가게》(박인하, 시공사), 《나는 만화에서 철학을 본다》(이주향, 명진출판)는 '만화 열독자' 혹은 '중독자'의 만화체험기를 다룬 책들이다. 이 책들은 평론에 대한 과도한 무게감을 덜어낸 만화에세이들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가운데 시인이자 건축가인 함

성호의 《만화당...》, '신세대 철학교수'로 불리는 이주향 교수의 《나는 만화에서...》는 글쓴이들이 전문적인 만화평론가가 아니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최근에는 만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조선일보》가 만화에세이 코너인 '행복한 만화가게'를 마련했는데, 함씨와 이교수가 공동연재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화평론가로 입문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호러, 퇴마, 하드고어, 엽기 등을 주제로 '빠딱한 만화읽기'를 시도한 박인하의 《...만화가게》는 만화 읽기로 문화감각을 익힌 세대의 정서가 잘 묻어난다.

《망가 vs 만화》(손상익, 초록배매직스), 《잘가라, 종이만화》(박석환), 《만화의 미래》(스콧 맥클루드, 감낙호, 이상 시공사), 《만화보기와 만화 읽기》(정준영, 한나래)는 매체로서의 만화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만화산업의 미래에 내다봤다. 그 가운데 《잘가라...》는 디지털 시대의 막강한 콘텐츠로 떠오른 디지털 만화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짚어준다.

이렇듯 만화비평서가 새로운 출판 장르로 자리잡는 데는 인터넷의 영향력에 힘입은 바 크다. 온·오프라인, 특히 인터넷 만화웹진을 통해 만화를 이야기하는 지면이 빠르게 확대됐고, 이렇게 썩든 만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만화에세이·만화비평서 출판으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에 대해 만화평론가 박인하씨는 "최근의 만화비평은 이론비평이나 학술비평보다 대중적인 저널비평으로 진행돼 에세이에 가까운 평론들이 많다. 이처럼 만화에 대한 품평이 활발해진 것은 만화 텍스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 만화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박운식 기자